

'도심의 허파' 바람길 숲 조성 착수

전주시, 사업 용역 착수 보고회 · 산림청 현장건설팀 2021년까지 200억원 투입 백제대로 등에 만들기로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의 대동맥인 백제대로 주변에 맑고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키는 바람길 숲 만들기에 착수했다.

시는 7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양일 전주시장과 오정학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를 비롯한 산림청 관계자, 도시숲 조성관리 자문단, 타 자치단체 관계자, 시 녹지 관련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 바람길 숲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주시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추진방향 설명에 이어 전문가 토론회와 질의응답,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천만그루 정밀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이 주관한 지역발전형 생활 SOC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1년까지 국비 100여원을 포함한 200억원 사업비가 투입 예정될 것으로 백제대로와 주변도로 곳곳에 꽃과 나무로 가득

한 녹지공간을 만들어, 전주를 미세먼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시원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시는 도시의 대동맥인 백제대로 주변에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의각각의 산림·공원과 도심 도시숲을 선형으로 연결시켜 도시외곽에서 생성되는 맑고 신선한 깨끗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과 뜨거운 공기를 바람으로 배출시키는 등 공기순환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백제대로 주변의 불필요한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다양한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과 뜨거운 열기를 도시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열섬현상도 완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시는 도심 바람길 숲이 조성되면 △전주를 둘러싼 모악산·고덕산·목방산·건지산·황방산 등 외곽산림·근린공원 △만경강·전주천·삼천·소양천 등의 물길 △공원과 기존 시설녹지, 완충녹지 등



전주시는 7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양일 전주시장과 오정학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를 비롯한 산림청 관계자, 도시숲 조성관리 자문단, 타 자치단체 관계자, 시 녹지 관련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 바람길 숲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소규모 녹지 △도심 가로수 등을 수렴해 바람길 숲 조성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착수 보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은 용역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전주시 특성에 맞는 바람길 숲 조성으로 녹색 인프라 확충에 온 힘을 쏟아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현상이 줄어드는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산림청 도시숲 조성관리 자문단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와 인근 주민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람길 숲 조성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착수 보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은 용역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전주시 특성에 맞는 바람길 숲 조성으로 녹색 인프라 확충에 온 힘을 쏟아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현상이 줄어드는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7일 (주)휴비스 전주공장(공장장 현종철)이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을 위한 '엄마의 밥상' 사업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5년째 이어진 따뜻한 아침밥상과 엄마의 마음

휴비스 전주공장, 엄마의 밥상 성금 1000만원 기탁 "향토 기업으로서 나눔 실천, 사회적 기업 기억되고파"

아침밥을 굶던 전주지역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하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에 꾸준히 참여하는 따뜻한 엄마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지난 민선6기 첫 결재사업인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이하 엄마의 밥상)'은 단순히 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시와 시민이 함께 차리는 따뜻한 밥상이다.

지난 2014년 10월 20일 처음 배달된 이래로 현재 매일 아침 175세대 280여명의 아이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따뜻한 아침밥이 배달되고 있다.

시는 7일 (주)휴비스 전주공장(공장장 현종철)이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을 위한 '엄마의 밥상' 사업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휴비스 전주공장은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엄마의 밥상'과 '지혜의 반찬'에 2000만원을 후원해 왔으며, 올 상반기 '지혜의 반찬'에 1000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이날 '엄마의 밥상' 사업에 성금을 추가 기부함으로써 2개 사업 누적 후원금만 1억원을 달성했다.

엄마의 밥상 사업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시대를 대표하는 복지정책으로 알려지면서 휴비스 외에도 삼백집, 한국시거스(주)와 같이 따뜻한 아침밥을 함께 차리는 기업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은 "휴비스의 나눔 정신이 살기 좋은 전주의 밑거름이 된다"면서 "5년째 후원금을 전달해주시는 휴비스와 기업·개인후원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휴비스는 전주에 소재한 첨단 섬유소재 선도기업으로, 엄마의 밥상, 지혜의 반찬 기부를 비롯하여 희망기움 물품지원, 연탄기부 등 우리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순까지 누적 모금액만 7억1600만여원에 달한다.

시는 시민들의 후원금을 활용해 엄마의 밥상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매년 케이크를 전달하고, 동네 서점과 함께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연간 4권의 도서도 지원하고 있다.

휴비스 현종철 공장장은 이날 "기탁한 사랑의 성금이 힘든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지역의 향토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나눔을 실천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은 "휴비스의 나눔 정신이 살기 좋은 전주의 밑거름이 된다"면서 "5년째 후원금을 전달해주시는 휴비스와 기업·개인후원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휴비스는 전주에 소재한 첨단 섬유소재 선도기업으로, 엄마의 밥상, 지혜의 반찬 기부를 비롯하여 희망기움 물품지원, 연탄기부 등 우리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완산구, 집단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관리 강화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라기)가 집단급식소 식재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집단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70여 개소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영업주자 급식소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 행위 ▲식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작업장 위생적 청결관리 여부 등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했다. 또한, 최근 조개탕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조개탕 취급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만 판매될 수 있도록 취급주의를 지도했다.

구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이 유통·판매업체를 통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유통판매 업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름보다 날이 서늘한 요즘과 같은 날씨에 식중독에 걸리기 쉬워 식품관리 및 섭취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약국서 지갑훑힌 40대 검거

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주시 완산구 모 약국 앞에 떨어진 120만원 상당의 지갑과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순간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정다운 기자

세외수입 우수사례 전국 '최우수'

전주시, 행안부 발표대회서

전주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세외수입 확충을 잘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의 '2019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문화가 돈이 되는 전주형 컬처노믹스(Culturenomics)'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정부가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세외수입 확충 및 징수를 향상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체납·징수관리 전국대회에 출품돼 총 108건의 사례 중 서면과 발표평가를 거쳐 12건의 우수사례에 포함됐으며 최우수상을 거머쥐게 됐다.

시는 지난 9월 24일~25일 이틀간 열린 '전라북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이번 전국대회에 출품돼 총 108건의 사례 중 서면과 발표평가를 거쳐 12건의 우수사례에 포함됐으며 최우수상을 거머쥐게 됐다.

시가 발표한 '문화가 돈이 되는 전주형 컬처노믹스'는 전주한옥마을과 전문문화화는 차별화된 전주만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유료 콘



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시민과 전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세외수입을 확충한 것이 핵심으로 전국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주요 내용은 △역사문화 콘텐츠 운영을 통한 경기전 입장료 유료화 △한옥마을 주말·평일 상설공연 △한복문화관·공예품전시관 전통문화체험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의 수익 시찰 전환 등 신규수입원 발굴 등으로, 시는 이를 통해 총 130여원의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했다.

박경희 전주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전주시 모든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세외수입 증진에 사용되는 세외수입 자부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으로 오는 12월 중 개최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이후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친절 서비스 제공'... 덕진구, 사회복지요원 교육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종엽)는 7일 구청 강당에서 일선 행정업무 수행하는 보조자인 사회복지요원 대상으로 '소속감 고취'와 '친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2019년 사회복지요원 소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양교육에서는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우수 사회복지요원 15명에게 표창장과 부상으로 특별휴가증(5일)을 수여하여 사회복지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또한, 김종엽 덕진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종 행정과 현장업무에 투입되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요원을 격려하고, 복무기간이 소중할 수 있도록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은 △1부 사회복지요원의 친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

지립 대표 전경옥 강사를 초빙하여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사회복지요원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해, △2부 사회복지요원 담당자의 복무규정 교육으로 이루어져 진행되었으며, 이후 사회복지요원들의 금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사회복지요원들은 "사회복지요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복무규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종엽 덕진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효과적인 소양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요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고품격 친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삼천, 더 깨끗해지나?

전주시, 서곡교~흥산교 일원에 매립된 폐기물 선별 처리

전주시가 생태하천이자 시민들의 자연 학습장으로 탈바꿈중인 삼천 일원에 매립된 폐기물을 말끔히 처리하기로 했다.

시는 삼천을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서곡교와 흥산교 사이에 매립된 폐기물을 선별 처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곳은 지난 1990년대 초반 전주시가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해 임시로 쓰레기 매립지로 활용되면서 현재 약 6000톤의 쓰레기가 매립돼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가 이처럼 매립폐기물 처리에 나서게 된 것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일환으로 맹꽁이 서식지 복원 및 생태학습장 조성을 추진하던 중, 서곡교~흥산교 일원이 과거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돼 약 6000톤의 쓰레기가 매립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삼천을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폐기물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환경단체의 자문과 전북지방환경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국비를 지원받아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등 삼천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는 여름~가을철에는 쓰레기 선별처리 공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하천 수위의 영향이 적은 내년 3월까지 매립 폐기물 굴착을 진행 중이며, 이날

중 폐기물 선별작업을 위한 가로 40m, 세로 50m, 높이 40m 규모의 돛 구조물의 선별장을 설치해 폐기물을 성상별로 선별·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매립된 폐기물이 말끔히 제거되면 삼천 수생태 복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맹꽁이 서식지 복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수생생물을 도심에서 관찰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이자 정서·교육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전북지방환경청의 허가를 얻어 지난 9월까지 해당구간에서 서식중인 맹꽁이 8마리를 포획해 덕진구 장동 인근으로 임시 이주시켰다.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맹꽁이들은 향후 서식지가 복원되고 생태학습장이 조성된 이후 원래 있던 위치에 방사될 예정이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매립된 폐기물 선별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가설물타리와 방진망을 설치하는 등 폐기물을 비롯하여 관리하고, 폐기물 처리 후에는 다양한 수생생물을 도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1년 8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한 채 1년에 5곳 이상의 쓰레기 처리장을 전전하며, 시내 변방동의 골짜기 채취장을 매립지로 이용했다. /김윤상 기자